

2. 합격 정보

1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72(24/48)	78(76/2)	84(64/20)	86(56/30)
2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54	64.75(22/42.75)	62.25(41/21.25)	62.75(36.5/26.25)

3.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1)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2) 회
총 수험 기간	(24)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인터넷강의수강/객관식문제회독/최신판례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인터넷강의수강/사례집/모의고사/최신판례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있음

4. 합격 후기

- 어떻게 학습을 하셨는지 각 주제 별로 작성해주세요! (글자수 제한 없음)

주제1~5 모두 작성해주세요!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저는 20.9.경 부터 1년정도 공부하여 21년도에 7급 교정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후 22년도부터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입니다. 교도관 업무 특성상 자연스럽게 형사법 및 민사법 관련 분쟁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정직 수험과목에는 형법과 민사법 관련 과목은 없어서 별도로 공부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다 자연스럽게 법무사라는 적절한 자격증이 있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 시험과목에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존재하기에 나름 가벼운 마음으로 23년도 10월 말쯤부터 민법 책을 구입하며 도전하였습니다. 대략 1차는 10개월, 2차는 동차 포함하여 1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직장병행이다보니 시간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버릴과목은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1차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은 아예 버렸고, 상법의 경우 어음수표, 해상, 항공은 버렸습니다.

헌법의 경우 7급공채 과목에 있다보니 공부하기 수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강의없이 예전 객관식 문제집을 보되, 최신판례만 보충하였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민법의 경우 출제가능성이 낮은 파트는 확실히 버렸습니다. (현상광고...)

2차 준비 과정에서 민법의 친족,상속법을 버렸으나 2차문제로 출제되어 어지러웠으나 다행히 합격하였습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공통적인 객관식 공부방법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사용하였던 방법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고, 해당부분의 객관식문제집을 풉니다. 그 외의 강의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듣지 않았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는 1회독시 문제를 읽고 보자마자 정답이 떠오른다면 아무 표시를 하지않고, 헛갈린다면 v표시를, 틀렸다면 vv표시를 하여 다음 2회차때는 v와vv만 보며 보자마자 알겠다면 v표시를 하나씩 지웁니다.(v표시는 아무표시없게, vv면 v로) 이후 3회독때는 아무 표시 없는 부분과 vv표시만을 보고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4회독때는 v와 vv만 보는 식으로 보는 양은 줄어되, 내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줄여나가는 과정을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의 문제는 아무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vv표시만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시험장까지 들고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길이에 겁먹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지 아는문제인지부터 먼저 판단하시고, 기출문제에서 주로 비틀었던 부분을 먼저 확인하신다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1) 민법 (38/40)

주교재: 박효근 법무사님 민법café 객관식

1차 시험 준비 중 재미있기도 하였지만 힘들었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두개를 보면 항상 한숨부터 나왔지만 회독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가 나고, 점수 배점도 커서 이정도면 1차는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 과목입니다.

민법은 모든 법과목의 베이스가 되는 만큼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1차 시험 준비과정인 만큼 비중은 객관식 문제집을 회독하는 것에 훨씬 많은 비중을 투자했고, 기본서는 문제를 풀다가 혹은 다른 과목 회독 후 돌아와서 휘발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체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병행 수험생인 만큼 출제비중이 낮아 버릴파트는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ex,현상광고 등) 나옴확률도 낮다고 판단했고, 또한 틀려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민법은 2차에도 시험을 보는 만큼 기본 법리만큼은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거 상관없이 객관식스럽게만 공부하였다가 2차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법리의 뼈대가 되는 판례는 적어도 키워드만이라도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2) 가족관계등에관한법률 (1/10)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시간부족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시험장에서는 느낌가는데로 찍었습니다. 그러니 한문제 맞았습니다. 버리실 분들은 한번호로 찍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민사집행법 (32/35)

주교재 : 한봉상 법무사님 객관식 민사집행법

절차법으로 고역스러운 과목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휴대폰으로 판례를 볼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과목입니다. 또한 판례를 외울 때 실생활에서 접할수 있는 물건이 판례에서 나온다면 연상시킬수 있게 판례를 암기하였습니다. (예컨대 토지 경매절차에서 명인방법 안갖춘 수목은 토지랑 함께 경매되니까 가치평가 안하면 중대한 하자 라는 판례는 나무를 보면 생각나게 의식하며 출퇴근)

정말 다행히도 2차에는 없으나, 민사집행법의 채권의 압류 및 추심(전부) 법리는 민법,민소법,민사서류 작성에 언제든지 출제될수 있으므로 2차대비를 위해 충실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법(15/20)

주교재 : 한봉상 법무사님 객관식 공탁법

공부하기 상당히 수월한 과목입니다.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었던 부분이 반복되어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만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별다른 걱정이 없으실겁니다. 또한 공탁법을 공부하니 민법의 공탁파트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 부동산등기법(27/35)

주교재 : 오영관 강사님 부동산등기법 기출모의ox

가장 끔찍한 과목입니다. 정말 공부하기 싫었고 볼때마다 화나고 짜증났던 과목입니다. 정말 두번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했고 순수하게 암기를 해야하는 과목입니다. 거기다가 양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1차는 어찌저찌 객관식스럽게 위의 공통된 공부방식으로 양치기 하여 1차는 패스하였지만 2차가 너무 막막한 과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애초에 시작부터 부동산등기법과 서류작성을 함께 공부할 것 같습니다. 1차 준비할때부터요. 비유하자면 부동산등기법은 야구 규정집을 시험보는 느낌인데 서류작성은 야구경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끔찍하게 암기해야하는 부분을 그래도 덜 끔찍하게 줄여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차 준비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끔찍한 과목임은 변함없습니다.

(6)상법 (24/30)

주교재:차상명 강사님 객관식 상법

생각보다 조문의 출제비중이 되게 높은 파트입니다. 직장병행의 특권으로 어음수표, 해상, 항공은 버렸습니다. 그리하면 상당히 양이 줄게됩니다. 또한 총칙에서는 기출문제가 반복되어 출제되고 회사법 파트가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상업등기법과도 호환되므로 전략적으로 공부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민법 기본법리가 상법에서도 상당히 많이 적용되므로 회사법의 조문들과 관련법리들을 충실히 숙지하신다면 상법은 걱정없이 합격하실겁니다.

(7)상업등기법(10/15)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주교재: 최재용 법무사님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제비중은 적으나 공부하기에는 부동산등기법처럼 순수 암기하여야 하는 끔찍한 과목입니다. 상술하였듯 회사법과 연계되는 부분이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그 부분을 공략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우월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8)헌법 (12/20)

주교재 : 김건호 비헌기ox

교정직 7급 준비하였을 때 헌법은 충분하게 공부하였다고 판단하여 옛날의 객관식 문제집을 한두번 보았고, 최신판례만을 보충하였습니다.

첨언하자면, 헌법은 헌정사 등은 버리시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기본권 파트의 해당 기본권의 근간이 되었던 판례를 뿌리로 두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본 경우 '만'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더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결론을 같이한다면 내가 준비안한 것이니 원칙대로 보았겠지 라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 등차 준비과정

평일에 퇴근하고 4시간 주말에 10시간씩 준비하는데 등차합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습니다. 실제로 서류과목은 아예 준비조차 못해서 백지로 냈고, 답지 작성방법이랑 민소법을 준비하기에도 부족하였습니다.

사실상 2차시험을 한번 경험 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생각보다 시험지가 크다. 화장실은 부족하니까 다른층을 써야 한다. 답안작성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 기득 준비과정

우선 사례집을 과목별로 하나씩 구입하였습니다. 사례집 활용법은 사례집을 읽어가며 문제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쟁점을 못찾는다면 답안은 작성조차 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강의로는 보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찾았다면 결론과 이유(판례)를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작성은 공부시간이 부족해지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본 결론과 이유를 사례집의 모범 답안과 비교하며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써야하는 부분인지 혹은 빠뜨려도 무방한 부분인지, 문제에서 보고 적당히 비벼쓸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기본서에 체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례집을 두어번 보고나면 얼추 문제를 보고 쟁점을 찾는 눈을 기를 수 있었고, 판례의 무조건 써야되는 부분을 골라낼수있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이제 이 다음은 기본서를 무한회독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외워야 합니다. 말로 내뱉든 허벅지를 꼬집든 무조건 외워야합니다. 판례를 통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제공될 부분, 쟁점이 되는 부분, 결론, 반드시 써야되는 부분등을 고민하시면서 외우시다보면 조금 더 판례가 입체적으로 보이고 외울부분은 줄일 수 있습니다.

4. 불의타를 얻어맞으며

이번 민법의 2문은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안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여 친족상속법은 2차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2문은 불의타였습니다.

1문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써내리고(588조와 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대금은 현실 건물 가격이되, 설정된 근저당권의 최고액한도로 피담보채무액 상당액을 지급 거절하는것에 그치고 실제 매매대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판례를 썼는데 그 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보충했다고 생각합니다.), 2문에서도 내가 쓸 수 없는 부분은 대충 조문이라도 갖다가 박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구구절절하게 써내렸습니다. 다만 2차 준비할 때 모의고사 등의 실제 연습을 충분히 해보지 않아서 시간안배에 실패하여 문제2의 4,5을 적지 못하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민법 과락이라는 걱정에 과음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험가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이번 시험은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의타면 남들도 불의타입니다.

불의타를 대비할수있으면 그건 불의타가 아닙니다. 그냥 시험장에서 불의타문제가 나온다면

음~ 아무도못쓰겠군 조문이 찾아서 박고 대충 결론 쓰고 나머지 문제를 잘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형사소송법 복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모두가 대비한 문제는 당연하게도 모두가 잘적으니 점수가 짭니다. 점수를 더 잘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낸 문제들도 모두가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문제에 답안을 작성할 때 모두가 외웠을 판례 문구에 더하여 조금 더 세심한 포섭과 사경이 사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제출받을때에도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적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최고득점은 전략과목이던 형법 답안 작성 시간을 형사소송법 답안 작성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라면 그 판례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2차과목에는 전략과목을 설정하자.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2차준비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 전략과목은 형법과 부동산등기법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시간투자를 적게 하는 겁니다. 과락을 넘길 수준으로만 공부하여 다른과목을 공부하는데 확보하였습니다.

형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형사소송법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이 바닥을 기어도 충분히 상쇄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목차를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답안작성을 연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류작성등의 과목이 섞여있는 민사소송법과 부등법과는 달리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기에 두 과목을 모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합니다. 최대한 법조문에 기대고, 등기서류작성에서 공부할 수 없는 부분만 고르고 골라서 암기했습니다. 그마저도 양이 방대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전략과목으로 설정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공부하는 내내 생각하였습니다.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직장병행 수험생의 경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의 경우 기본강의 수강 즉시 해당파트의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고 헛갈리거나 틀린문제는 v표시 등 위에 상술한 객관식 문제 풀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험 약 1~2개월 전부터 최신판례 강의는 반드시 수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문제풀이 강의의 경우 헛갈리는 문제 등을 기본서 발췌독한다는 느낌으로 골라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이미 알고 확실히 맞출수 있는 내용을 반복하여 수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의 경우 2,3순환의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2,3순환의 모의고사는 모두가 대비하는 문제입니다. 틀린다면 치명상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세요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솔직히 2년만에 합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10년안에는 붙겠지~ 라는 생각으로 법단기의 평생프리패스를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시험에 필요한 학습양은 정말 어마무시했고 어중간한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합격 못하겠다, 진짜 허송세월 다 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쯤부터 잠도 줄여가며 실패없이 달렸습니다. 5. 형사소송법 복기.

모두가 대비한 문제는 당연하게도 모두가 잘적으니 점수가 짹니다. 점수를 더 잘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낸 문제들도 모두가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문제에 답안을 작성할 때 모두가 외웠을 판례 문구에 더하여 조금 더 세심한 포섭과 사경이 사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제출받을때에도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적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과목이던 형법 답안 작성 시간을 형사소송법 답안 작성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라면 그 판례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2차과목에는 전략과목을 설정하자.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2차준비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 전략과목은 형법과 부동산등기법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시간투자를 적게 하는 겁니다. 과락을 넘길 수준으로만 공부하여 다른과목을 공부하는데 확보하였습니다.

형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형사소송법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이 바닥을 기어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목차를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답안작성을 연습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류작성등의 과목이 섞여있는 민사소송법과 부동산과는 달리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기때문에 두 과목을 모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직에서 더욱 빛나는 법무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무사단기

부동산등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합니다. 최대한 법조문에 기대고, 등기서류작성에서 공부할 수 없는 부분만 고르고 골라서 암기했습니다. 그마저도 양이 방대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전략과목으로 설정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공부하는 내내 생각하였습니다.

직장병행 수험생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정말 죽을듯이 달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작성해주신 합격수기는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법무사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